

- 본문 : 요한복음 1장 45~51절
- 제목 : “순전한 마음을 가진 제자”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하루 종일 뛰어나니며 매사에 서두르는 현대인들, 동행이 없는 운전석에 혼자 앉아 크고 작은 자기 차를 몰고 나와 길을 꼭 메운 자동차의 흉수 속에서 양보 없이 앞을 다투어 신경질적으로 전진만하는 현대인들,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불조울 상태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면에 사색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만이 자주 찾아가는 친숙한 공간에서 영혼의 평정심을 찾고 인격을 다듬고 지혜를 쌓아가는 그런 사려 깊은 삶을 몸에 익히려고 단련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마치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으며, 예수님이 신임할 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같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당신의 삶은 어느 쪽인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누면서 제자의 삶의 중간평가를 해 보라.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요한복음 1:45~51에서 ‘바돌로매’로 불리는 “나다나엘”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나다나엘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접근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본문을 먼저 관찰해 보라.
2.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편견의 벽을 바로 허물고 “편견의 노예”에서 벗어났다.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당신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편견의 노예’로 붙들린 문제가 있는가?
3. 제자 나다나엘은 정직한 구도자로서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순전한 제자였다.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보셨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가? 당신의 삶에도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는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나다나엘은 “깊은 묵상의 사람”이었다.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고 늘 묵상하기를 좋아했다. 평생 말씀을 가까이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순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가?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성경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실 것이다. 당신이 “깊은 묵상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라.

· 말씀기도제목

1.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마음에 있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 “편견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2.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신앙”으로 묵상의 씨를 뿌리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제자”되게 하실 때 깊은 묵상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